

## 타이어 爆發로 死者

타이어가 한 靑年의 高貴한 生命을 빼앗았다.

3月 18日의 各 新聞 朝刊紙上을 떠들석하게 한 事件이다.

3月 17日 日本 東京都 大田區 多摩川 2의 6의 23에 있는 東京 도요다포오크리프트株式會社의 構內에서 同社의 셀스맨, 德原公氏(23歲)가 自己의 승용車의 타이어를 交換하러 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過度 하게 까모된 마이카아의 타이어를 交換하려고, 5本의 新品타이어를 사들이고, 點心時間을 利用하여 自己 單獨으로 脫着作業을 하려고 生覺하고 있었다.

일도 일단 安定이 되고, 德原氏는 作業을 始作했다.

車會社의 셀스맨쯤되면, 메카닉한 일에도 밝고 簡單한 故障정도는 自己 혼자서 고쳐 버리는 사람이 많은 職場이므로, 作業을 혼자서 하고있는 德原氏를 보아도, 同僚들은 別로 留意하지도 않았다.

于先, 德原氏는 右後車輪부터 着手하여, 아무 困難도 없이 作業을 끝마치고 2本째의 脫着에 着手했다.

장사용으로 備置하고있는 에어콤프렛샤아를 使用해서 타이어에 空氣를 注入하려고 타이어를 옆으로 높이고 앞으로 구부린 姿勢로 한쪽발은 타이어에 걸고 空氣를 注入하기 始作했다. 職場의 同僚가 날카로운 爆發音을 들은 것은 이때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깜짝놀라서 달려 온 사람들은 爆發하여 5m 近處까지 날라올라 갔다가 굴러가 있는 타이어와 타이어에 맞아서 고개를 치켜들고 위를 보고 轉倒,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瀕死의 狀態에 있는 德原氏를 봤다. 惶急히 救急車를 불러 근처의 病院에 메어다놓고 治療를 했으나 爆發한 타이어의 힘으로 강하게 머리를 맞아 頭骨이 부러진 德原氏는 治療의 效도 없이 얼마 안있어 죽었다.

事故 原因을 調査한 池上警察署의 말로는, 爆發한 타이어를 調査한바, 튜우브部分이 約 50cm의 길이로 破裂되어, 여기서 空氣가 튀어나와, 그 彈力으로 날아간 듯하다는 것이었다. 同署는, 事故原因에 對해서, 다음의 2點을 들고 있다.

- ① 被害者의 튜우브에의 공기 注入法이 拙劣했는가
- ② 被害者가 이 作業中, 에어게이지를 使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보아, 空氣를 너무 많이 注入한것은 아

닌가 하는것인데, 마이카아의 손질이, 哀惜하게도 23歲의 靑年 목숨을 無價値하게 잃어버리게한 좋은 一例이다. (死者에게는 未安하지만……)

少毫의 미스가 죽음을 自招하는, 타이어의 事故에는 不斷히 如斯한 危險이있다. 高速道路를 달리는 車의 타이어를 調査하면 空氣壓不足등의 初歩의미스가 많다고도 듣긴다.

危險하기 짝이없는 이야기이지마는, 아직 一般人들의 타이어에 關한 認識이 低調하다.

### 安全타이어의 悲願

#### 整備士試驗으로 實現

타이어 業界로서 如斯한 타이어에 依한 事故를 없애는 일은 悲願이지만, 全國타이어 商工 協同組合聯合會(加藤清一會長)를 推進母體로하는 타이어 整備技士 制度의 法制化는 이 所願을 實現시키려는 타이어인들의 피와 땀의 結晶이다.

今年는 全商工協組下에 타이어 整備技士의 自主檢定이 行해져 受驗者도 2級, 3級 합해서 1,748名, 至今까지는 不參하고 있던, 近畿地區도 初參加, 582名의 受驗者가 있어 業界의 타이어 整備士法制化의 준비는 完了하고 있다.

그런데, 日本道路公團名古屋管理局 調査에 依한 同局 管下의 高速道에서의 全故障件數는 3,346件, 其中 18%의 594件은 타이어에 依한 것이었다고 한다.

高速道에서의 타이어트러블은 죽임에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數字로 볼것 같으면 타이어에 對한 유우져어들의 認識은 낮다 法制化, 早期實現을 祈願한다.

〈註: 71年 5月號 月刊 自動車タイヤ誌에서 轉載〉

